광주 찾은 관광객 10명 중 4명

"문화수도가 뭐야?"

한백리서치 외지인 300여명 설문

홍보 인력 개발 시스템 구축 절실

광주를 찾은 관광객 10명 중 4명은 광주시의 대표적 프로젝트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행복발전소와 문화도시 일자리포럼 주최로 지난 12일 열린 '문화도시의 문화관광 일자리 만들기' 토론회에서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인력수요조사 및 고용창출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한 한백리서치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백리서치가 지난 9월 13일~15일 광주를 찾은 관광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가 42%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문화도시 사업이 아직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있다'는 답변은 56.7%로 겨우 절반을 넘었다.

광주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행 후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답한 이들이 56.7%였지만 '변함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33.3%나 돼 '관광 광주'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이미지 쇄신을 위한 지역민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 관광지를 타인에게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58.7%가 '추천하겠다'고 답한 반면, '잘모르겠다'는 답변은 22.3%였다.

여행사 관광자원과 관광종사자 서비스, 정보제공의 만족 정도를 묻는 항목에는 '보통'이 가장 높았고, '다소 만족'과 '불만족'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광주의 관광 자원과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관광관련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력 개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하나아이티 여행사 이해경 대표는 "광주를 진정한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 개발 시스템이 가장 필요하다"며 "통역능력을 지닌 문화해설사들에 대한 엄격한 자격 검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요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문화해설사협회 정경희 국장은 "문화도시로의 발전은 광주의 관광자원을 얼마나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전달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 처럼 문화해설사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호남 화합 등반대회 대선을 60여일 앞둔 14일 영호남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지역감정 극복과 화합을 위해 광주 어등산에서 등반대회를 가져 눈길을 모았다. 영호남화합추진위원회(가칭)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김혁규(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전 경남지사와 고재유 전 광주시장 등 양 지역 정치인과 산악동호인 1만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달 부산 금정산에서 등반대회를 열기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석원 괴자금 '盧비자금' 아니다

檢 60억대 돈 출처 의심 … 김창록 산은총재 재소환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범죄수익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4일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60억대 괴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주식 형태로 보관됐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수표의 발행과 관련한 기록 분석 등에서도 노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수 있다는 어떤 정황과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이 주식으로 숨긴 자금이 돌고 돌아서 김 전 회장의 자택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60억대 괴자금이 김 전 회장이 횡령 등을 통해 조성한 쌍용그룹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출처 및 성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이 고문(명예회장)으로 있는 쌍용양회 등 자금성격을 파악하는 단서가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2~3곳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자금조성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괴자금이 김 전 회장이 외환위기 후 쌍용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빼돌린 공적자금의 일부로 확인되면 예금보험공사 통보를 통해 전액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과 관련, 신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를 조만간 재소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재가 지난 달 소환조사에서 후원금 전달 경위를 허위진술한 사실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검찰은 신씨가 변 전 실장의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해 지난 해 김 총재와 접촉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유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신정아씨 돌발상황 대비 2인실로

지난 11일 구속된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여·35)씨는 교정당국의 '세심한 배려' 속에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14일 법무부 교정국과 영등포구치소에 따르면 신씨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돼 5㎡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지만 구속 후 첫 검찰 수사를 받은 뒤인 12일 오후 2인실로 이감됐다.

교정당국은 신씨를 이감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심경과 좌절감으로 인한 돌발 상황을 우려해 신씨의 '룸메이트'를 엄선하는 배려를 보였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어제 영등포구치소장의 판단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신씨를 2인실로 옮겼다. 신씨와 같은 방을 쓰게 된 사람은 혹시 모를 '해코지'를 우려해 교통법규 위반 과실범으로 골랐다"며 "엄선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성철 스님의 법어집 '영원한 자유'를 읽으면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를 1개월간 변호한 박종록 변호사는 전했다.

박 변호사는 "구속 수감된 신씨의 심경이 복잡할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을 달래라는 의미에서 내가 평소에 읽던 성철 스님의 법어집을 건네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공기업·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무시

한수원·화순군 등 협의내용 안 지킨채 사업 강행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과 화순군 등 지자체가 사기업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국토관리청 80곳과 한국도로공사 20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국토관리청 중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33차례와 26차례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기업은 142곳에 불과했던 반면 공기업은 289곳에 이르렀다.

이들 기업은 원전 배출수, 지하수 폐공조치, 훼손된 수목이식,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광범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 원전 5·6호기를 건설한 뒤 해양조사 결과 원전에서 배출되는 뜨거운 물이 애초 평가서에서 예측한 범위를 크게 초과했으나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으며, 토지공사의 경우는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거지역과 140m이상 떨어진 곳에 변전소를 건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3월 적발됐다.

화순군은 화순온천지구를 개발하면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으며, 의정부시는 의정부 추동 근린공원을 건설하면서 녹지율을 애초 82.9%에서 80.5%로 낮췄다. 또 충주시는 충주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정부, 샘물교회측에 5천여만원 정산 요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와 관련, 피랍자들이 소속된 샘물교회 측에 약 6만2천달러(한화 5천693여만원)를 상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14일 "정부가 지난 11일 피랍 한국인들을 아프간에 파송한 샘물교회 측에 실비 정산 차원에서 약 6만2천달러를 납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방된 피랍자들이 카불·두바이 등에 체류했을 때 발생한 숙박료, 그들이 입국하는데 소요된 항공료, 고 배형규 목사 등 운구 관련 비용 등을 합산,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탈레반 피납 한국인 몸값 1천만달러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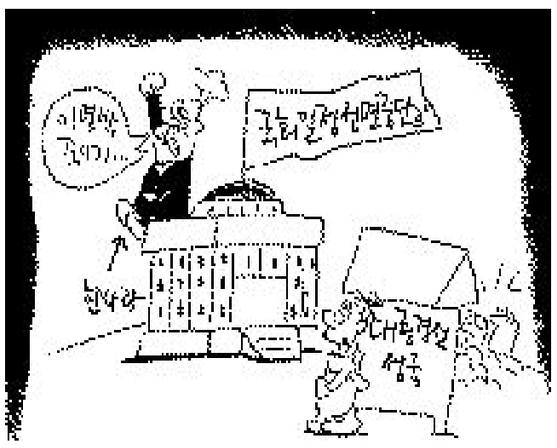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반군에 납치됐던 한국인 인질들 중 21명이 풀려날 때 1천만 달러의 몸값이 건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일요판 선데이 텔레그래프는 14일 인터넷판에서 "그때 받은 돈으로 무기를 사들이고 (탈레반) 지원자를 훈련시켰다"는 탈레반 요원 3명의 말을 보도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광주광역시공고 제 2007- 460호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 공모

한국문화예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박용철·허백련·오지호·임방울 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한국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과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상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007년 10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시상 부문 및 인원

시상부문	상명칭	시상종류 및 인원	비 고
문학부문	박용철문학상	본상 1명	심사 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음
한국화부문	허백련미술상	본상 1명, 특별상 1명	
서양화부문	오지호미술상	본상 1명, 특별상 1명	
국악부문	임방울국악상	본상 1명	

2. 시상품 : 광주광역시장 상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규정에 의거 부상 수여가 불가하므로 상패만 수여함

3. 수상후보자 자격
- 박용철문학상 - 시·소설 등 문학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허백련미술상 본상 - 한국화, 문인화, 서예 등 전통미술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허백련미술상 특별상 - 허백련미술상 본상에 규정된 분야에 장래가 유망한 작가로서 공고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 오지호미술상 본상 - 서양화, 조각, 판화 등 현대미술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오지호미술상 특별상 - 오지호미술상 본상에 규정된 분야에 장래가 유망한 작가로서 공고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 임방울국악상 - 판소리 등 국악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4. 심사대상 제외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접수
- 추천권자 :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운영위원회 위원
-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 이력서 1부, 소명한관 사진 2매,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1부.
- 접수기간 : 2007. 10. 15 ~ 10. 30 (15일간)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1200),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

6. 수상자 발표
2007. 11월중 (시 홈페이지, www.gwangju.go.kr)

7.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공적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하실 곳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 (062-613-3461)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광주광역시연합회 (062-528-9207)

2008년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 모집 공고

회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기업 "동광건설"에서 미래를 선도할 사원을 모집합니다. 고객과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중심의 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동광건설과 미래를 함께할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기간 : '07. 10. 15(월)~10. 28(일) 18:00 (14일간)
○모집부문
- 신입 : 토목(환경, 조경 포함), 건축(기계/설비, 소방, 전기 포함), 관리(인사, 총무, 경리, 영업 등)
- 경력 : 기획(경영전략, 사업개발 등), SOC
○접수방법 : 입사지원은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 채용정보 입사지원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최종 제출전까지는 수시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출후 수정 불가)
○근무지 : 전국
○응시자격

부 문		모집인원	내 용
신입	공통자격요건		- 08년 2월 4년제 정규대학교(원) 졸업예정자 (단 기졸업자는 2007년 2월 및 8월 졸업자만 가능)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건설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회화 가능자 우대
	토목	00명	- 해당부문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 - 안정 기사자격증 : 토목, 조경, 수질, 대기, 소음진동, 교통, 폐기물
	건축	00명	- 해당부문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 - 안정 기사자격증 : 건축, 기계/설비, 전기공사, 소방(전기,기계)
	관리	0명	- 전학년 평균 B학점(4.5 만점에 평점 3.0) 이상 취득자 - TOEIC 600점, TOEFL(PBT 510점, CBT 180점), TEPS 480점 이상인 자 (2006년 이후 성적만 가능) - 경상계열, 법정계열, 어문계열 우대 -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경력	공통자격요건		- 4년제 정규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유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건설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외국어 회화 가능자 및 대기업 경력자 우대
	기획	0명	- 재무전략 및 기획업무 등 5년 이상 경력자 - M&A 추진경험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중장기 사업개발, 자금운용 등
	SOC	00명	- SOC 사업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턴키/BTL/PF, 각종 개발 프로젝트 사업계획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dk21.c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건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영업·모임·모집
사설금융·매입·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 ☎(062)220-0524
• 직통:(062)227-9600
• FAX:227-9500

분 실

골프회원증
No. J01500498
광주C.C
문종식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 공고함.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윤재연(300324-1646310)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느단 349
공 고 인:김정희, 윤창현, 윤도강 윤달승, 윤선웅, 윤경필
한정승인수리일:2007. 10. 8
공고기간:2007. 10. 15~2007. 12. 14
연 락 처: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477-1 윤도강(☎010-7285-0656)

급매

국도변

♣ 나주·남평역 인근
♣ 남향투자 최적지
♣ 22,353㎡ (7,000평)
♣ 주인직접 (평당3만)

010-7704-0052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
- 건설업 면허 (법인) 양도·양수
- 법인 M&A(분할 합병)
- 건설업 신규등록 대행
- 기업진단 (공인회계사)
- 공제조합 출자금 대납
- 기타 건설업의 업무상담

(주)우성건설정보

본 사
TEL : (02)587-7400
FAX : (02)597-8855

호남지사
TEL:(062) 226-6300
FAX:(062) 943-2244